AI 펭톡 활용 수업 현장 속으로

서 교육감, 전주만성초 수업 참관… 전체 초교 확산 방안 모색

서거석 교육감이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AI 펭톡 활용 수업을 참관했다. 이에 따르면 21일 전주만성초등학교에서 서 교육감과 EBS 창의융합교육부장, 초등영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펭톡 활용 수업'이 진행됐다.

인공지능 기반 영어말하기 연습 시스템인 'AI 펭톡'은 초등학생들에게 풍부한 영어 말하기 환경을 제공하고, 기초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EBS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날 수업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실혁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 교육감이 AI 펭톡 활용 선도학교 사례를 직접 살펴봤다.

AI 펭톡 활용 수업은 전주만성초 임석빈 교사가 맡았다.

임 교사는 SW·AI기반 EBSe AI 펭톡 프로그램을 교실 영어수업에서 어떻게 교과서와 연계해 활용하는지에 대해 선보였다. 학생들은 1인당 1대의 태블릿 PC를 갖고 교과서에서 배운 주요 문장과 표현을 AI 펭톡을 통해 진행했다.

서거석 교육감이 21일 전주만성초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AI 펭톡 활용 수업에 참관했다.

또한 펭수와 대화하기, 실시간 발음 피드백, 언어 음성인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던 스마트 교육을 실제 교실수업과 병행해 수업을 진행, 결과물을 공유했다.

임 교사는 "EBSe에서 개발한 AI 펭톡은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영어말하기 학습 서비스로 누구나 장소와 시간의 구애 없이 펭수와 함께 재미있고 스마트하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면서 "영어말하기 중심의 AI 펭톡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면서 학교 현장에서 더 부족해진 의사소통중심 학습의 효율적인 학습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업을 지켜본 서 교육감은 "AI 펭톡을 활용해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업하는 모습을 보았다. 앞으로 도내 모든 학교에서 AI 기반 맞춤형 수업, 창의·융합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기르고,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키우는 일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새만금잼버리 참가비 지원 부당하다"

전주완산고 P모 교사 "청소년 기본법 근거로 지원 대상 교사·학생으로 제한 조례 헌법 위반"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북교육청은 법적인 문제를 살펴 학생들의 참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북 지역 학생들을 세계시민으로 키워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미 도교육청에서 밝힌 참가비 지원의 법적 근거로는 청소년 기본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전주 완산고 P모 교사는 2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참가비 지원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지원 대상을 교사와 학생으로 제한하는 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했다. 만약 교사와 학생에 대한 참가비 지원이 합법적이 되려면 초·중등 교육법에서 정한 교육활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행사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국가수준에서 이뤄지는 교육, 지역교육청에서 이뤄지는 교육, 학교수준에서 이뤄지는 교육이어야 가능하다는 것.

이어 잼버리 행사는 민간단체인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주최하고 이 행사가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조직위는 잼버리 행사의 사무처리 등을 도와주는 주관자일 뿐 교육과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잼버리 행사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 참가비를 지원하게 되면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8년 국회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전북교육청이 다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전주 완산고에 재직중인 P모 교사는 2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참가비 지원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특별교부금으로는 잼버리 대회 참가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교부금의 교부 목적은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

끝으로 전북도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속한 청소년들에게 이미 관련 조례에 따라 참가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므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설령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과 무관한 잼버리 대회 참가비 지원을 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P모 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오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단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 오후 3시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2022년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단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 대상은 202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단 35명이다. 이는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원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미디어 교육 환경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설계와 운영 능력을 함양해 교육 현장 실행을 수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하반기 미디어 리터러시 현장지원단 활동 계획 안내 △경희령 강사(미디어교육 활동가)의 '성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역량 기르기' 특강(창작과 제작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 방법) △학교급별 네트워크 사례 나눔 및 공동과제 계획 수립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비판적 사고와 시민적 역량을 갖추고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역량을 학생들에게 길러주기 위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미디어 교육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20일 도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케이스부룩 인터미디어트 스쿨 마크 러셀(Mark Russel) 교감이 면담을 갖고, 원활한 국제교류 수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역량 갖춘 세계시민 육성

전북교육청, 뉴질랜드 케이스부룩 인터미디어트 스쿨과 협약

서 교육감 "세계와 소통·협력 지구촌 문제 해결 역량 기를 것"

전주 자연초, 세계시민교육 주제 프로젝트 수업 실시간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미래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교류 수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제교류 수업 확대는 서거석 교육감의 주요 정책중 하나로, 도내 학생들에게 미래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기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21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케이스부룩 인터미디어트 스쿨 관계자들이 국제교류 수업을 진행할 전주자연초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국제교류 수업을 운영하는 자연초의 수업을 참관한 후, 학교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국제교류 시범학교인 전주자연초는 케이스부룩 인터미디어트 스쿨과 '세계시민교육 주제 프로젝트 수업'을 온라인 실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도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서 교육감과 케이스부룩 인터미디어트 스쿨 마크 러셀(Mark Russel) 교감이 면담을 갖고, 원활한 국제교류 수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등) 간 협력체계 구축 △학생·교사 연수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 방안 △청소년(초·중·고)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 외국어(영어) 학습 교육과정 공동 연수·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 교육감은 "국제교류 수업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수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세계와 소통·협력하며 지구촌 공동체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가는 미래역량을 기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교류 확대 및 해외연수 추진 등을 통해 전북의 학생들을 세계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번 주말,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전북대 수의대, 24일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 개최

'반려동물 한마당'이 이번 주말 전북대학교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수의과대학이 주최하고, 국립대학육성사업과 전북수의사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전북대 소운동장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체험 부스와 강연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유기동물재활센터 최범귀 센터장이 '반려동물을 잘 키우는 방법'을 주제로 한 명사 특강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부스에서의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이날 행사에서는 반려동물 위생과 미용 체험을 비롯해 반려동물 장난감이나 인식표, 발 세정제, 얼굴 부채, 발도장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무료 접종과 함께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 스튜디오도 마련됐다.

한편 전북대 수의대는 체험객들이 부스를 방문하면 스탬프를 찍어주고, 일정 개수 이상 스탬프를 찍은 이들에게 상품도 줄 예정이다.

안동춘 수의과대학장은 "이제는 우리 삶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반려동물과 함께 가을날의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박문제관리센터, 내달까지 초등생 도박예방 프로그램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오는 10월까지 4회에 걸쳐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Clean School 놀이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박문제가 저연령화 되고 사행성 게임의 위험성이 심각해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놀이전환 프로그램은 전북센터와 모두학교(학산종합사회복지관)가 지난 4월부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구성한 내용이다.

어린이 스스로 사행심을 유발하는 게임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는 놀이를 탐색해보고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궁리해보는 시간으로 매주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세부 활동으로는 흑백사진기로 우리가 하는 놀이를 발견해보기, 재미있는 놀이 신나게 함께하기, 경쟁과 사행심과 같은 놀이의 위험성 알아보기,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위한 우리들의 생각 알리기 등이 진행된다.

전북센터 윤명숙 운영위원장(전북대 교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 기관들과 협력으로 도박문제 치유와 상담 뿐 아니라 도박문제의 보편적 예방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 공간조성, 학생·교사 의견 반영… 도교육청, 학교 탐방 나서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사례 공유 위해… 희망학교 19곳 38명 대상 잇따라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 학생과 교사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 공간조성을 위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및 사례 공유를 위한 학교 탐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역량 강화 연수는 미래사회 역량에 기반한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과, 학생과 교사 등 학습자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교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희망학교 19개교 업무담당자 38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유와 현장 방문이 잇따라 진행된다.

전남 능주고등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학교 공간을 새롭게 설계하는 공간구축으로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한 학습자 중심 공간 조성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2019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된 이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실 리모델링이 진행됐다.

현장 방문이 이뤄지는 순천제일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 재구조화를 통해 공간 유연성, 휴식·자율공간 확보, 동선의 효율화 등을 실현한 학점제형 학교 환경 조성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자인 공모전 또는 학생 자치회를 통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조성에 주목하고 여러 여건 때문에 시설 보완 및 개선이 어려운 일선 학교들에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자 활동 중심 공간 구성'을 희망하는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대, '찾아가는 취업멘토링' 개최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이상행)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21일 스타센터 일대에서 청년의 날을 맞아 '찾아가는 취업 멘토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취업 멘토링'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등의 현직자 취업 멘토링 △전라북도 청년 창업가인 ㈜청세의 이기태 대표의 명사 특강 △취업 준비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원데이클래스가 진행됐다.

이번 취업 멘토링은 만 18~39세의 도내 대학생과 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사전 예약을 통해 기관·기업의 현직자와 청년 간 1:1 맞춤형 취업 상담으로 관심 직무 이해와 취업 준비에 따른 구직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실질적인 취업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상행 센터장은 "앞으로도 전주대학교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멘토링과 같이 실질적인 취업 전략과 청년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